

원정 승리 광주FC, 홈에서 기세 이어간다

울산 상대 1-0 승...이정호 감독, K리그 통산 100경기·50승 달성 14일 홈서 인천과 경기... '유스 출신' 이희균 앞세워 골 사냥 나서

광주FC의 이정호 감독이 자신의 100경기 날 '홍명보 감독'에게 KO 펀치를 날리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10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2라운드 울산 HD와의 경기에서 K리그 통산 100경기를 이뤘다. 100경기 날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울산 벤치로 쏠렸다.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속 홍명보 감독의 울산 고별전이 예상되면서 역대급 규모의 취재진이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약속을 저버린 홍명보 감독을 향한 울산 서포터즈들의 야유도 쏟아졌다.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정호 감독은 이날 경기를 1-0 승리로 장식하면서 승자가 됐다.

두 팀은 29개의 슈팅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울산이 10개의 유효슈팅을 만들었지만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연달아 후수비를 선보이면서 울산을 울렸다. 특히 울산 공격의 핵심 주만규는 원발과 헤더로 시도했던 슈팅이 간발의 차로 막히면서 땅을 쳤다.

광주도 16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공세를 벌였고, 이 중 14개는 유효슈팅으로 남았다. 후반 21분에는 득점도 기록했다.

이희균이 최경록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골대를 갈랐다. 광주 선수들은 이후 승리를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날리면서 골대를 지켰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정우영까지 데뷔전에 나섰다. 6분의 후반 추가 시간까지 울산을 봉쇄한 광주 선수들은 이정호 감독에게 100경기 기념 승리를 선물했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승리로 통산 50승이자 울산전 4연승까지 이뤄냈다.

논란 속에 홈팬들을 마주했던 홍명보 감독은 패장이 돼 울산 사령탑으로 마지막 날을 보냈다. 울산은 11일 홍명보 감독과 상호 계약을 해지하고, 이경수 수석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정호 감독은 안방으로 돌아와 팬들과 100경기를 자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14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23라운드 홈경기를 벌인다.

울산 안방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광주는 위



10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4 울산 HD와 광주FC의 경기에서 광주 선수들이 이희균의 선제골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의 인천을 상대한다. 인천은 최근 9경기에서 5무4패에 그쳐,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성환 감독이 사퇴하면서 인천은 변재섭 수석코치를 임시 감독으로 해 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앞선 무승부의 아쉬움을 달래고 승리로 연승을 잇겠다는 각오다.

지난 5월 안방에서 치러진 맞대결에서 광주는 최경록의 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종료 직전 무고사

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1무 1패로 광주가 열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유스 출신' 문민서-안혁주-이희균을 앞세워 인천 골대 뚫기에 나선다.

특히 이희균에 시선이 쏠린다. 이희균은 앞선 울산전에서 부상 복귀 후 3경기 만에 시즌 5호포를 기록했다. 울산 골키퍼 수문장 조현우에게 막혀 멀티골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쾌조의 컨디션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수비진에게 주어진 임무는 인천 '에이스' 무고사 봉쇄다.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결정력을 앞세운 무고사는 삼리전을 통해 상대를 혼드는 능력도 뛰어난 만큼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광주는 이정호 감독의 100경기를 기념해 인천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특별 한정판 MD(기획판대 상품)도 판매한다.

광주는 빛고를 서포터즈와 협업해 티셔츠, 머플러, 마스킹타이프 3종을 제작했으며 14일 오후 5시부터 광주축구전용구장 1번 게이트에 마련된 판매처에서 한정 수량을 판매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의 올리 왓킨슨이 11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유로 2024 4강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45분 결승골을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왓킨스 극장골' 잉글랜드, 2연속 유로 결승행

네덜란드에 2-1 승 15일 스페인과 격돌

대회 초반만 해도 시원찮은 경기력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호화군단다운 저력을 발휘하며 유로 2024(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잉글랜드(국제축구연맹 랭킹 5위)는 11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네덜란드(7위)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2021년에 열린 유로 2020에 이어 2개 대회 연속으로 결승행을 이룬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루지 못한 우승의 꿈에 도전한다. 직전 대회에서는 이탈리아에 우승을 내줬다.

이번 대회 결승 상대는 우승 후보 프랑스를 제압하고 올라온 무적함대 스페인이다. 두 팀의 마지막 일전은 오는 15일 오전 4시 올림피아슈타디온

베를린에서 킥오프한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 필 포든(맨체스터 시티)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모여 개막 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으나 정작 경기력이 시원치 않았다.

조별리그 C조에서 1승 2무로 조 1위를 차지했지만 3경기에서 2골을 넣는 데 그쳐 자국 팬, 축구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토너먼트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은 보이지 못했지만, 실제 실적으로 끌려가면서도 어떻게든 승부를 뒤집는 끈질긴 추구를 선보이며 결승 무대를 밟는 데 성공했다.

16강, 8강에 이어 이날 네덜란드와 4강전에서도 잉글랜드는 상대에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7분 사비 시몬스(라이프치히)가 페널티지역 모서리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편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하게 찼다.

잉글랜드는 '특급 스트라이커' 케인의 활약 덕

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케인이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덴젠 뎀프리스(인터 밀란)와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돼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키커로 나선 케인이 침착하게 성공해 전반 18분 1-1을 만들었다.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은 선수는 잉글랜드의 올리 왓킨스(애스턴 빌라)였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9골 13도움으로 맹활약한 왓킨스는 후반 35분 케인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고, 투입 10분 만에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잉글랜드에 결승골을 안겼다.

후반 45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공을 받은 왓킨스는 등을 진 채 공을 지킨 후 돌아서면서 오른발로 낮게 깔아 차 골망을 흔들었다.

이 득점으로 강호 네덜란드를 제압한 잉글랜드는 대망의 첫 번째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축구의 종가인 잉글랜드는 자국에서 열린 1966 대회에서 정상에 선 월드컵과 달리 유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PGA 출전 함정우·이정환 "재미있게 도전"



함정우



이정환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함정우와 이정환이 모처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출전을 앞둔 각오를 전했다.

함정우와 이정환은 11일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의 르네상스 클럽(파70·7천237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900만 달러)에 출전한다.

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 대회에 함정우와 이정환은 지난해 KPGA 투어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 2위 자격으로 참가한다.

함정우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PGA 투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시차 적응이 잘 되고 있다"며 "잠도 잘 자는 스타일이라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함정우는 이번 시즌 초반 PGA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 대회에 출전했다.

다만 성적은 좋지 못해 7개 대회에서 컷 통과 세 번, 최고 성적은 2월 파나마 챔피언십 공동 36위다.

함정우는 "콘페리투어 활동은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골프는 매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석을 다져 조금씩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링크스 코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어디를 보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갈 때도 많

아 정말 생소하고, 농사짓는 곳에서 골프를 치는 느낌"이라고 어색해했다.

올해 KPGA 투어에서는 6월 한국오픈 공동 8위에 오른 함정우는 "TV에서만 보던 곳에서 골프를 치니 출세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마음으로 재미있게 경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콘페리투어 경험에 대해 "선수들이 워낙 멀리 치고, 코스 환경에 적응이 잘 돼 있더라"며 "저도 코스 세팅에 맞춰 훈련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역시 "지난주 아시안투어 모로코 대회에서 톱10에 들었고, 여기 온 이후 샷감도 계속 좋아지는 중"이라며 "코스도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없고,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에 처음이라 아직 낯설다"는 그는 "그래도 적응은 잘한 것 같고, 골프의 나라인 만큼 기대도 된다"고 의욕을 내보였다.

4월 우리금융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이정환은 "PGA 투어 출전은 2017년 제주도에서 열린 더 CJ컵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한 번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컷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